

한전, R&D 예산 감소...경영난에 '선택과 집중' 투자

올해 R&D 예산 4063억원... 지난해보다 138억원 3.3% 삭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해상풍력·태양광 등 집중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내 연구개발(R&D) 예산과 집행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감소는 한전의 막대한 누적 적자와 부채 등 재무위기 때문으로 한전은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 분야에 자금을 우선 투입한다는 내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R&D 예산은 지

난해(4201억원)보다 138억원(3.3%) 감소한 40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영업손실이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위기로 인해 R&D 분야에서도 재정 긴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전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최근 3년 동안 한전은 R&D 예산과 집행액을 대폭 줄여 왔다.

한전의 R&D 예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4554억원과 4555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값이 크게 뛰면서 한 해 만에 32조 655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R&D 예산은 4201억원, 올해 역시 4063억원을 기록하며 불과 2년 새 500억원이 줄었다. 또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액 역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R&D 집행액은 지난 2021년 3736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3458억원), 2023년(3422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R&D 집행액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 43조원, 부채는 202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올해 2분기 역시 전기요금에 동결되면서 재정 긴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검토해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R&D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초 수립한 '2024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에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활용 운영비용 절감 ▲센서·로봇 활용 설비진단, 기후변화 대응 설계·시공기준 향상 ▲전력산업 배출 오염물질 원천저거 ▲해상풍력·태양광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집중 분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전은 '선도형 R&D로 대전환 추진'을 올해 기술개발 추진 체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전력망과 발전, 자가용(BTM) 분야에서 경영효율 향상, 공급안정·고장감소, 안전·재난·환경 대응, 미래 전력망 구축, 탄소중립 선도 등을 R&D 과제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한전KPS '청렴옴부즈만' 위촉...올해 첫 운영협의회 개최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4명 구성

한전KPS는 지난달 29일 청렴도 향상 및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제5기 청렴옴부즈만' 위촉식 및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혁신홀에서 열렸고, 이성규 상임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출범한 '제 5기 청렴옴부즈만'은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명성이 높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한전KPS 청렴옴부즈만은 사내 민원, 갑질 등 문제 처리과정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자문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제 24-1차 운영협의회'에서 현재 한전KPS의 민원현황 및 회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공명·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



아르헨 '김치의 날' 제정의원 김치 홍보대사 위촉

aT, 저탄소 식생활 홍보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서울 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아르헨티나의 막달레나 솔라리 키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전 의원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키타나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르헨티나에서 해외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김장이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됐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제정돼 거대한 남미 시장에서 김치의 인지도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영국 브라질 등 4개국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선

포돼, 국산 김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97개국으로 수출됐고 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1% 증가한 1억 56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김치의 날이 제정된 국가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증가율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기존 한인 시장에서만 판매되던 김치가 현지인 시장까지 확산되는 등 현지에서 소비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키타나 전 의원은 "글로벌 김치 홍보대사로서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에서 김치와 K-푸드 열풍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차원의 김치의 날이 해외 최초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키타나 의원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남미 시장 전역에 한국산 김치와 저탄소 식생활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KISA,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 양성 교육

순회형교육 제주까지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K-Shield-케이실드)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실드는 KISA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보안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실드는 취약점 및 악성코드 분석, 모의 침투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기술력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응 가능한 고급 인력을 양성해 지난 2022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교육은 ▲운영 보안 ▲보안 컨설팅 ▲침해 사고 대응 ▲모의해킹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보안 ▲WEB/SW 개발 보안 과정으로 구분해 총 8개 분야 59개 과정으로 실시된다. 특히 초급(K-Shield Start)부터 최고급(K-Shield Pro+)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했고, 케이실드 인증서 취득을 위한 특화(K-Shield Special) 과정을 신설했다. 케이실드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아카데미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기업 재직자는 KISA 아카데미 누리집(https://academy.kisa.or.kr)에서 접수 중인 강좌를 선택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에 따라 최종 인증서 평가를 통과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케이실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한편, 올해 교육은 교육 형태의 다변화를 위해 지난해 부산에서 선보인 순회형 교육을 제주까지 확대 실시한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전KDN, 오픈소스 특강 임직원 대상 역량강화 나서

한전KDN은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특강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한전 KDN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오픈소스에 대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오픈소스에 대한 필수 지식 및 K-ECP(KDN-Energy Cloud Platform)'를 주제로 클라우드에서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오픈소스에 대한 지식과 K-ECP에 적용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을 다뤘다. 이날 특강에서는 오픈소스 외부강사인 변현창 한국레드햇 상무가 ▲오픈소스의 생태계와 클라우드 관계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사용 시 법적 유의 사항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적용 방안 등 기업에 필수적인 오픈소스 지식을 강연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